

이야기 7 : 여호수아

주제말씀
[여호수아 6:20a]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 성을 살펴보게 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 위에 사는 '라합' 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만 여리고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군사들을 보내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들이 도망 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라합은 성을 무너뜨리려 올 때 자신과 가족을 살려주기를 부탁했어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을 하고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 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물살이 너무 센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어요.

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어요.

거세게 요동치던 요단강의 물살이 멈추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넌어요.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점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 모든 군사는 6일 동안은 매일 성 주위를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되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성 주위를 일곱 번 돌아라. 그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갈게 붙면 성을 향해서 크게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행했어요.

그러자,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렸어요.

성이 무너지고 성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약속한대로 점탐꾼을 살려줄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살려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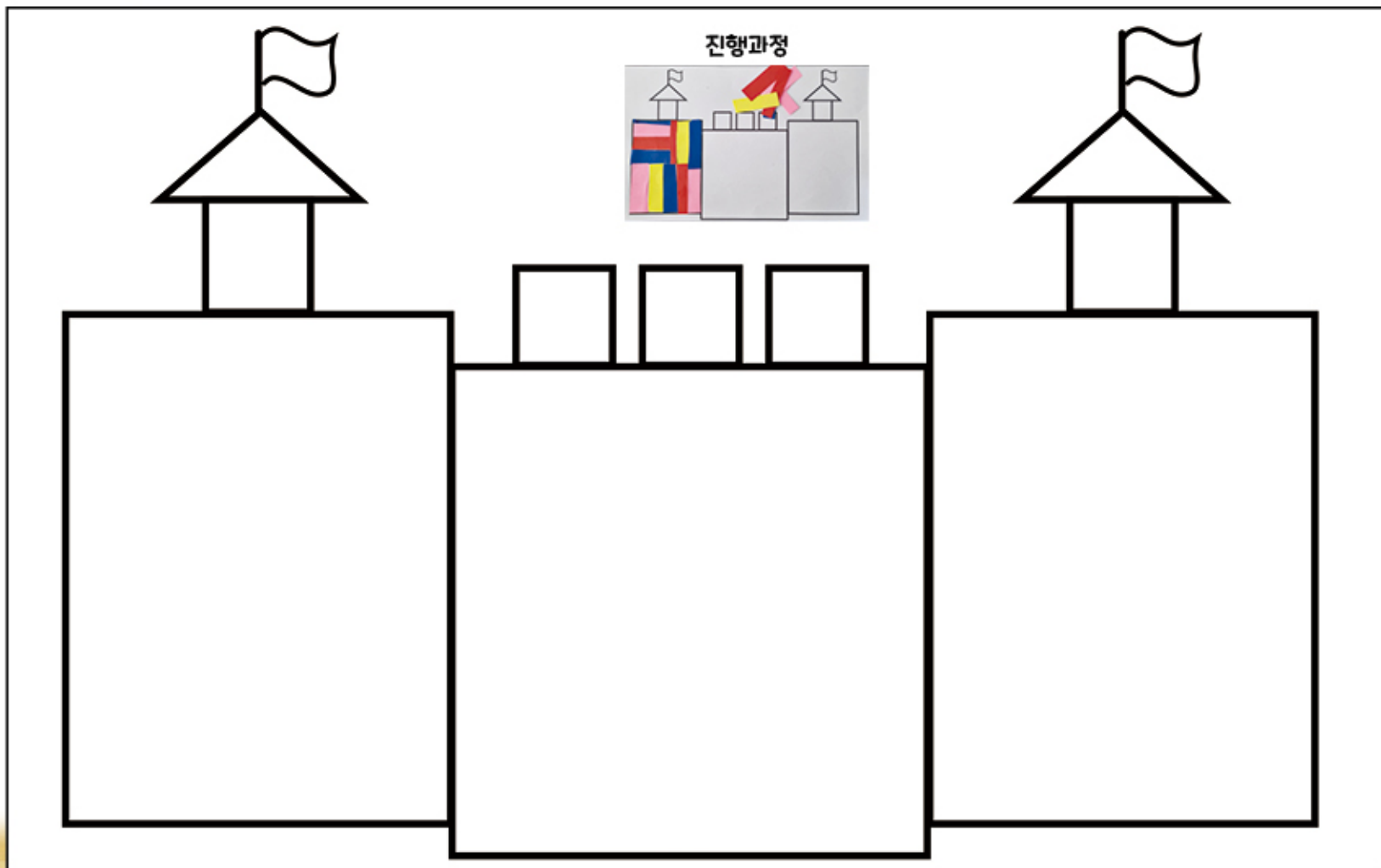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여호수아 6:20a)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활동 1.

색종이를 아래의 진행과정처럼 잘라서 붙여 여러고 성을 꾸며보세요. (준비물: 색종이, 가위, 풀)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